

##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대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 유형과 관련 요인 분석

김 정 은<sup>1)</sup>

### 요 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이 대학 차원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에 따라 잠재계층을 유형화하고, 분류된 집단유형(계층)별 특징과 유형별로 학생 개인 차원의 진로준비활동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패턴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참여 활동이 몇 개의 최적화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나아가, 유형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학교/전공계열 관련 변수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교/학교/삶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실시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의 4차년도(2019) 조사 데이터인 대학생 8,516명(남학생 4,465명(52.4%), 여학생 4,051명(47.6%))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참가형(Engaged type, n=267, 5.9%)’, ‘기본형(basic-participation type, n=1,514, 33.3%)’, ‘저조형(Disengaged type, n=2,766, 60.8%)’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기존 분석의 문제점인 계층변화와 분류오류 미반영 문제를 보완한 3-STEP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유형 분류 예측변인으로, 개인 특성에서는 학점과 조별 전공과제/공부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성별과 개별 전공과제/공부시간의 영향은 없었다. 학교/전공계열 관련 변인에서는 대학유형 중 2년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전공계열에서는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의보건계열, 예체능계열의 학생이 영향을 나타냈고, 진로/직업탐색 과목 수강의 경우 거의 모든 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분류된 집단별로 실제 학생 차원의 진로준비활동 여부와 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9개 진로준비활동 하위 영역 중 직업훈련, 자격증취득, 방문부탁, 면접훈련, 외모관리 경험에서 차이를 나타내었고, 만족도의 경우 학과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집단별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진로준비행동, 학생 만족도, 3-STEP방식, 잠재계층분석

1)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 I. 서론

장기불황에 따른 고용 없는 저성장과 국내외 경제 및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 진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고용 문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19(COVID-19) 위기상황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청년층의 고용안정성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경기일보, 2021.8.29.).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의 채용 및 노동시장 축소와 함께, 청년층(15세~26세)의 실업률이 25.6%(통계청, 2020),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9년에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3.3%로 전년도 대비 0.9%p 감소하였었다(교육부, 2020). 이처럼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의 고용감소 현상으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는 대학생들의 취업불안과 절망감을 가중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김난영, 2020; 한국경제, 2020. 08. 13).

이러한 지속된 어려움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은 학생이 최초로 직업세계 진입 위한 진로결정을 준비하는 대학생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 전체로 봐도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결국 국가 전체 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성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백원영, 김민경, 2019; 이정미, 길혜지, 2019).

따라서 대학에서도 진로교육 차원에서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 상의 전공 및 교양 교과목 뿐만 아니라, 취업캠프나 면접 및 이력서 작성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과 더불어 인턴십, 취업박람회,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 개인 차원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스스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자격증 취득, 취업스터디, 직업훈련이나 공모전, 대외활동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학교주관의 진로지원 서비스에만 의지하지 않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진로준비에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다.

대학생활을 통해 경험한 것들은 미래 개인의 경제, 사회생활 등 인생의 전반적인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만족에 따라 졸업 후 직업 선택이나 사회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숙자, 2018). 특히, 대학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교과 과정 서비스 중 하나인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은 학생의 진로와 취업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프로그램/활동은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서화정, 김병주, 2016; 신혜숙, 남수경, 민병철, 2013).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취업 교과목, 직업심리 검사, 개인 및 집단 진로상담, 직장 체험 프로그램, 취업 박람회,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 취업특강, 취업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취업담당자 능력개발 등이 있다(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 장승환, 임진혁, 이재춘, 2017; 허균, 2016). 또한, 진로검사, 상담, 멘토링, 진로캠프, 취업캠프, 면접특강, 채용설

명희 등도 포함되어 있다(박가열, 2009; 박민지, 김계현, 2015; 진미석, 정혜령, 이수영, 2010).

이러한 대학차원의 진로 및 취업 지원 노력과 더불어 학생 개인의 취업은 자신의 명확한 진로목표의 설정과 함께 그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달성된다(이정애, 최용용, 2010; Lent, Brown, 2006). 즉, 학생 차원의 진로준비행동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노력으로, 진로와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태도가 아니라 진로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행위이다(장태정, 문미경,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의 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노력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실제로 학생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대학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보다는 활동 참여 여부가 더 중요한 연구의 관심이 되었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20% 이상은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충분한 진로탐색 과정 없이 취업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로결정과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은애, 진성미, 20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이는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연구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평균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원 외, 2011). 대학이 학생들의 적절한 진로발달을 지원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자퇴나 재수, 전과, 편입 등의 다른 대안을 강요받고 있으며, 많은 경우 자신의 관심과 적성보다는, 부모의 권유나 사회적 가치에 맞추어서 안정된 직종인 공무원 시험이나 공시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억범, 2004). 이러한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평가 및 점검을 통해 개선하고, 학생 주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로개발 및 준비활동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성공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학생의 실제 진로활동 참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가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구인인 자아정체감, 진로태도 성숙, 진로결정수준, 진로개발 역량, 진로 성숙도 등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로그램 참여나 구체적인 활동 참여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개별 진로 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와 진로교육 성과변인이나 노동시장 성과변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생 개인 차원에서 실제로 어떤 양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참여 양상이 학생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진로준비활동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시간, 공간, 재원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지만 개별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결국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종합적으로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개별 프로그램들의 성과 평가를 넘어 학생 개인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전체의 종합적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성과를 위한 노력을 크게 대학차원과 학생 개인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유형과 이 유형

이 대학생 개인의 진로준비활동 실행과 학교/학과, 삶의 만족도 차이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8가지 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경험 패턴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요인과 학교/전공계열 배경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분류된 유형별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활동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학교/전공계열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분류된 각 유형에 따라 실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과, 학교 및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대학 진로/취업지원 활동 참여 경험에 따라 잠재계층은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대학 진로/취업지원 활동 참여 경험 잠재계층과 개인요인, 가정배경, 그리고 학교관련 예측요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학생들의 대학 진로/취업지원 활동 참여 잠재계층별로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검토

### 1. 대학 진로교육 현황

대학교육의 확대 과정에서 다양한 학과와 전공이 신설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장과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구조로 인해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간극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에서 보다 정교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진학률의 증가와 함께 청년실업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임언 외, 2005).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가장 큰 고민은 진로문제이고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도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지원하기 위해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2010)의 대학교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의 취업지원 담당부서에서는 진로·취업상담, 취업교과목, 취업특강, 취업캠프, 취업동아리,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외(2016)의 4년제 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조사 결과, 105개 대학에서 학교당 진로교과를 10.5과목씩 개설했고, 교과별 진로교과 수강생이 174명으로 나타났다. 즉, 대

학 내에 다양한 진로 관련 정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다수를 대상으로 진로교과가 운영되기도 하고 인턴십과 같은 과목의 경우 소수로도 교과가 개설되기도 하였지만 보통의 경우 30~4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대학에서 개설한 진로교과의 유형을 살펴보면, 취업과 관련된 과목 위주로 개설되었다. 국가주관 고용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훈련을 27.7%하고 있으며, 대졸자의 60.4%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신종각 외, 2017).

대학 진로서비스의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 110개 대학 중 104개 대학(94.5%)에서 학교 당 평균 10.9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진로서비스 프로그램은 입사원서 클리닉, 취업박람회, 기업설명회, 직무적성검사 교육, 취업캠프, 인턴십 등의 취업 중심의 활동이 60%이고, 진로심리검사, 직업적성검사, 진로 상담, 진로캠프 등 진로 중심의 활동이 21%를 차지하였다. 또한, 진로·취업 상담, 취업진로프로그램, 멘토링 등 진로·취업 중심 서비스 유형도 8.4%로 그 뒤를 이었다(김정희 외, 2016).

박천수(2018)는 GOMS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5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2.47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개별 프로그램으로 보면, 50%를 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재학 중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종류가 많아질수록 졸업 후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확인된 진로캠프와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각각 14.6%, 20.1%로 대학생 5명 중 1명 정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대학교육에서 진로교육 활동을 확대하고, 대학내 진로교육 관련 조직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진로교육 질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이나 전공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제언하였다(박천수, 2018; 박화춘, 박천수, 2019).

대부분의 대학은 진로교육 교과목과 취업지원을 위한 교과목 및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이강주 외, 2015; 김정희 외, 2016). 하지만 여전히 전담기구의 예산과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태이며(진미석 외, 2010; 김승보 외, 2012)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진로개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로 초기 입직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지연, 2001; 김정희 외, 2016).

## 2.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프로그램)

대학에서 진로나 취업에 대한 관심 증대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나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정보를 탐색 및 수집하며 입사지원, 인턴참여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진로 및 취업준비를 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정보탐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노동시장 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진로나 취업프로그램 참여경험이 학생의 미래 노동시장 성과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계형, 김경근, 2008; 채창균, 김태기, 2009; 허균, 2016).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진로역량을 개발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대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활동을 말한다(신혜숙, 남수경, 민병철, 2013; 이제경, 선혜연, 2011). 대학에서 운영하는 구체적인 취업지원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진로·취업 인·적성 및 심리검사, 진로·취업 상담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 관련 전공 및 교양 교육, 취업 캠프 및 특강, 취업동아리나 커뮤니티, 취업 준비 프로그램, 취업 멘토링, 직업 체험 프로그램, 취업 인프라 구축, 전공 관련 프로그램, 취업담당자 능력개발 등 13개로 세분화할 수 있다(이영대, 윤행한, 2007).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8개의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과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기업/채용정보제공, 경력개발센터 진로/취업상담, 취업준비 프로그램, 진로/직업 멘토링, 현장실습/인턴프로그램, 진로개발 웹사이트 활용, 잡페스티벌/박람회 활동 참여이다.

대학 차원의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프로그램을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단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취업준비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활동 등에 대한 정보부족과 직업탐색의 어려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해서 학생들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창훈, 강낙중, 2011). 이는 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구직과 관련된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병석, 이종구, 2014).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직업의 종류와 전망에 대한 다양한 최신 정보 제공, 취업 및 진학 관련된 특강, 선·후배 멘토-멘티 등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황미경, 문영주, 2012).

학생이 수업중 교수와 토론을 하거나 수업 이외에 시간에 교수와 진로상담을 하는 등의 상호작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개인적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Astin, 1993).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및 학습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덕, 이용국, 2014). Crites(1969)는 진로(취업) 상담을 학생 스스로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학생의 진로선택과 선택한 진로에 대한 적응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다. 진로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주고,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주며, 직업선택과 직업생활에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주어 선택한 직업에 대한 확인과정을 돕는다(김충기, 1993).

직업 현장능력 강화 활동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등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합격하기까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실무를 배우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제현장에서 선배 직장인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직업실무와 조직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안시연, 2018). 이러한 취업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입사지원서 및 면접특강, 취업캠프, 취업컨설팅, 학기별 취업강좌 프로그램 참여가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 염도기와 문상규와 박성수(2017)은 인턴십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가 취업성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캠프를 참여한 학생일수록 취업을 빨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윤지영, 임정연, 2020). 최일수 신은중(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정적인 효과는 확인되었지만, 반면 직업심리검사, 취업박람회, 기업의 채용설명회가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천영민, 정승철, 2017).

대학생이 대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김지영(2014)은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세부적으로 정규직 취업과 높은 임금수준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은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직장체험이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이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과 임금 수준 향상 등의 노동시장 이행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박천수, 2018).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교육 활동이 유익하다고 인식한 프로그램은 취업 가능성과 정규직으로의 취업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와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노경란 등, 2011; 박천수, 2018; 이만기, 김호원, 2015). 김윤중(2015)은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취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신혜숙 등(2013)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이 잘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캠프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조직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1:1컨설팅 및 집중적인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 및 성취감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강원준, 2008). 취업특강은 학생들에게 일회성 강의로 취업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전도현, 2010). 취업박람회는 구인업체와직접 연결하여 취업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강원준 외, 2008). 손영민(2016)은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준비 등의 진로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의견조사를 분석한 이영대와 윤형한(2007)의 연구에서는 취업캠프가 가장 효과적이며, 다음으로 이력서, 면접클리닉 등과 같은 취업준비 프로그램, 진로와 취업상담, 취업관련 교과목, 취업특강 등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반면, 취업박람회를 효과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다섯 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원준 등(2008)의 연구에서는 취업동아리, 취업박람회, 학기별 강좌, 교내 취업특강, 취업캠프의 순서로 효과성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실습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취업박람회, 기업의 채용설명회는 취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다(최일수, 신은중, 2016; 천영민, 정승철, 남기성, 2019). 성희진, 나승일(2012)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대학차원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취업교과목과 특강,

취업행사와 취업지원 부서를 통한 지원 등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인턴십, 현장 실습, 취업알선과 같은 실제 직업 세계에 대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한 이상호 등(2010)의 연구를 보면, 학생의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교내 취업지원 부서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방문하는 경우도 소수에 불과하여 그마저도 단순히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구직 및 취업정보를 얻고자 방문하여 눈높이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대학생의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 분류 영향 요인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유형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탐색한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특성 차원에서 먼저, 성별과 관련해 진로장벽은 남학생이 낮게 인식하나 진로준비행도에는 차이가 없었다(박소영, 정영숙, 2011, 장이슬, 송병국, 2015). 보건계열 전공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취업준비행동에 성별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취업준비행동의 하위 영역 중 취업준비노력과 비공식적 직업탐색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배성숙, 노희진, 문소정, 2014). 선행연구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에 성별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와(강희순, 2010; 박정희, 김홍석, 2009) 그렇지 않은 연구(허영원, 손은령, 2011)가 혼재되어 있다.

학점과 관련해서는, 좋은 일자리 취업성가에 대한 연구에서 현장실습, 취업클리닉, 학업성취도, 외국어성적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최일수, 신은중, 2016). 다른 연구에서도 진로준비프로그램 참여 효과성, 평점, 어학연수, 자격증 수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이만기, 김호원, 2015).

자아개념과 관련해서,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자아개념이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진로 발달이란 일과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통합된 자아상을 갖고 이를 수용하며 발전시키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Super, 1957). 즉, 자아개념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인식이며, 개인별 경험 및 능력의 수준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하면서도 고유한 속성을 가진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따라서 개인의 진로 준비와 직업 선택 등 진로 발달은 자아개념과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고, 자아개념의 발달 단계와 나란히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을 거친다(Gottfredson, 1981). 선행연구(Bechtoldt et al., 2010; Choi, 2012; Ya-Ling et al., 2014)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개인의 진로선택이나 진로준비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및 학과 차원의 유형 분류 요인으로는, 먼저 대학 유형과 관련해서 한상근 외(2019)의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는 전국의 328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체 대학의 약 86%, 전문대학의 98%가 진로 및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교육과정과 서비스는 진로지도 및 상담, 취업지도, 창업지도, 진로 및 취·창업 종합으로 나뉘는데 대학교의 경우 취업 지도 교과목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44.6%),



전문대학의 경우 창업지도 교과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46.0%).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교과목 및 서비스는 대학교와 전문대학 모두 취업지도 및 지원의 비율이 34.7%,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담 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86.2%였으며 전문대학은 87.1%였다. 또한 94% 이상의 대학에서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과 기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전공계열별 계층분류 영향과 관련해서는, 인문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참여 빈도는 다른 계열에 비해 높고(서희정, 윤명희, 2014) 구직을 준비하는 시간도 다른 계열과 비교해 가장 길지만 취업률은 가장 낮으며 전공과 실제 업무불일치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정지선, 이수정, 신정철, 2011). 즉, 인문계열 대학생은 활발한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지만,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진로개발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장한별, 박재현, 2018). 예체능계열 졸업자 역시, 전반적인 취업준비행동 정도는 타 전공자들에 비하여 낮고, 개인 레슨 등의 도제식 직업활동을 많이 하는 예체능 전공자들은 타전공 학생들에 비하여 1인 창업 등 프리랜서 비율이 높았다. 예체능계열 전공자들은 대학시절 체계적인 진로결정과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영민, 이수영, 임정연, 2013).

반면, 공학계열의 전공자가 인문, 사회계열 졸업생들에 비해 전공과 직무일치도가 높으며, 첫 직장을 구하는 데에도 시간도 짧다고 보고한 김우영(2017)의 연구결과에서, 이공계열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특별한 진로준비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공계 학생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김혜민, 라영안, 2020). 보건계열 대학생들 또한, 대학 입학 전부터 이미 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취업준비행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배성숙, 노희진, 문소정, 2014).

마지막 계층분류 영향요인으로, 진로와 취업과 관련 있는 전공 및 교양 교과목에 수강에 대해서는, 진로개발지원을 위한 교과목이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 진로 및 취업교과목은 취업교과목 전담교수를 채용하거나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학기 단위로 특별강좌 형태나 정규과목의 형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정희 외(2016)는 국내 4년제 110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진로교육 교과목과 서비스 및 진로교육 전담기구의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110개 대학 중 105개 대학(95.5%)에서 진로교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취업 중심의 교과목은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과목으로 전체 진로교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진로교과는 절반 정도 되었고 전공 선택으로 35%, 전공필수로는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안기돈과 황명구(2018)는 진로/취업 교과목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기업분석대회와 면접대회가 취업준비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목 담당 학과 교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진로교육 교과목 참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결정, 진로준비 행동,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수란, 정미경, 2014; 김종운, 김현희, 2016; 박천수, 2018; 박화춘, 박천수, 2019).

## 4.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 성과 요인

### 가. 학생 진로(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 활동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을 준비해 가는 과정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상식, 2019; 석민경, 2020). 최근 취업준비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준비 활동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조운서, 2021), 보다 구체적인 취업관련 준비행동으로 자격증 취득, 외국어 습득, 교육프로그램 참여, 인턴 및 실습경험 등을 말한다(김건, 2019; 김주섭, 2013). 취업준비 활동은 교내 취업정보실 방문이나 정보탐색을 통한 취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회사를 찾아보는 것부터, 취업을 위한 각종 시험준비, 자격증 취득, 취업희망 분야의 직무 경험, 이력서 작성, 시험 및 인터뷰 등 본격적인 준비행동을 모두 포함한다(김서리, 2018; 조운서, 2021). 구성요소로는 취업목표, 자격증, 대외 공모전활동, 각종 시험준비, 자원봉사, 구직기술 함양 등이 있다(조운서, 2021).

취업준비 활동을 포괄하는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선택을 위해 노력하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행위뿐 아니라 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즉, 진로에 대해 인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실제 행동적 영역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과 차별화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과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는 등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요구된다(이예진, 이기학, 2010).

문승태와 박미하(2013)는 대학생에게 있어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수립한 미래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즉, 진로활동과 진로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하여 실천해야하는 행동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투자해야 하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그 행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격증 수가 많으면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고,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로 취업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였다(김안국, 2003; 이만기, 김호원, 2015; 이영민 등, 2014). 특히, 자격증의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국가자격증과 공인민간자격증이고, 취업에는 높은 난이도의 자격증 취득과 근무분야와 연관이 높은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안영식, 정주영, 김영식, 2013). 하지만 이기종과 김은주(2006)은 자격증이 취업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이영민과 이수영과 임정연(2013)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보고하였다.

안소연 등(2017)은 관광전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취업준비 활동으로 이력서 작성 및 면접훈련 교육, 대외활동, 자격증 준비 순서라고 하였다. 윤지영과 임정연(2020)은 대학생활 경험 중 자격증 취득과, 공모전 수상, 직업교육 등이 더 빠른 취업을 돕는다고 하였다. 최근에 필수적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대학생들은 PT면접, 영어면접, 토론면접, 인턴, 직무역량, 입사지원

서 등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이종찬, 2019), 기업체에서는 공모전 입상, 직무관련 자격증과 인턴경험 등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조성인, 김은애, 2014).

심지어 취업준비생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체형 또는 외모를 닮아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김효정, 2012). 그들에게 자신감 있는 외모와 이미지는 대인관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며, 취업경쟁률을 강화시키는 주요한 변수로 인식되어진다(장태정, 문미경, 2016; Watkins & Johnston, 2000). 특히 간호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은 매우 중요하여 서류나 시험 등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용모와 태도, 의사표현력 등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한주원, 2015).

이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9개 하위영역으로 직업훈련(사설학원 포함), 자격증취득, 취업부탁, 방문부탁, 면접훈련, 구직정보 인터넷 탐색, 취업스터디, 외모관리, 공모전 참가를 사용하였다.

#### 나. 만족도의 개념 및 구성요인

학습자가 받는 교육 서비스 효과는 교육 기관에 대한 학습자의 심리적인 만족도를 보면 알 수 있다(Mandell et al., 1992).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는 교육기관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의사결정 및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므로, 교육 만족도는 교육 기관의 교육 서비스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Astin, 1993).

##### 1) 학과만족도

전공만족도는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이 소속한 전공/학과를 다른 대안적 전공들과 비교한 인지적인 평가결과로서(이형룡, 박슬기, 2010),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와 전공 과정이 자신의 미래 진로와 부합한다고 인식하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진다. 또한 전공 이수과정에서 진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 적성, 흥미 등에 따른 전공의 일치여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면서 전공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고 한다(Milsom & Coughlin, 2015). 전공에 대한 만족은 곧 학과 만족을 의미한다. 학과만족도는 전공과목을 학습하면서 새로운 학문에 대한 기대감 충족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기대 등 긍정적인 사고가 통합되면서 학과만족도가 결정된다고 하였다(송윤정, 조규관, 2015). 이러한 학과 만족도는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민소라 외, 2019). 어윤경(2011)은 학과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졸업 후 진로도 적극적으로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과만족을 대학생이 자신이 속해있는 학과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판단과정의 결과로 정의한다.

## 2) 대학만족도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에 대한 명성과 평판 같은 학교 이미지를 학교생활만족도의 구성요인으로 포함시키고(신소영, 권성연, 2013),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인식 정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lvers & Raposo, 2010). 따라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사회적인 학교의 위상이나 이미지 역시 학교생활 만족도의 요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조원기와 이수정(2016)은 대학생활만족도를 자신이 선택한 학과(계열, 학부, 전공)와 대학에 만족한 상태라 정의하였다.

## 3) 대학 생활만족도

대학만족도는 크게 교육방법으로 수업활동의 적절성, 평가의 공정성,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수의 열정으로 구성되고, 교육내용으로는 교육내용의 체계성과 다양성과 질, 그리고 효과성 등으로 구성된다(송호준, 2016; 신소영, 권성연, 2013).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에는 학생이 다양한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한 자아실현과 대학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관계를 이루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 정도에 대한 인식 또는 평가이기도 하다(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장강 외, 2021). 즉,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인 호감도를 뜻하며 학생의 기대치를 얼마나 만족시켰는지로 정의될 수 있다(Sumaedi, Bakti, & Metasari, 2011).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적 측면의 학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학교생활 만족도를 구성한다(김익형, 김창현, 2019; 손경애, 이덕로, 2015; 이수연, 박은혜, 2015). 따라서, 다양한 교내외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로결정 및 관련 정보제공은 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오윤자, 이흥연, 안성식, 2018).

##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가정 병행, 직업에 관한 소명, 직장 내 차별, 임금수준 등 다양한 직업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영희, 2006; 장진이, 이지연, 2014). 연구자들은 삶의 만족을 '일상적인 생활을 만드는 활동으로부터 행복함을 느끼고, 자기 삶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 삶의 만족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 지표인 건강, 경제 상태 주관적 지표인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 등 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일반화되고 있다(정순돌, 김정인, 2010).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한 개인이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 주관적 만족감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학생이 느끼는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삶의 만족도 측정지표로 삼았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2016년 새롭게 다시 실시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의 4차년도(2020)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4차년도(2020) 조사 대상은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학생 10,558명 중 삭제패널, 군입대, 사망, 원양어선 등 조사불능 패널을 제외한 9,446명이다. 설문조사는 노트북을 이용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였고,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실제로 전체 조사 성공 인원 8,516명 중 977명이 온라인으로 조사되었다. KEEPⅡ 4차년도(2020)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수행되었고, 설문내용은 설문시점의 지난 해 즉, 2019년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 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고교 졸업 후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조사대상의 대학교 및 전공 별로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 성과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 2. 분석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표변수는 대학생들이 학교 차원의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이고, 결과변수는 개인 차원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과/학교, 학교생활 및 삶의 만족도이며, 예측변수는 개인 특성과 학과/전공계열 관련 변수들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 1) 지표변인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서비스 경험에 대한 여부를 사용하였다. 즉, 2019년 대학에서 제공한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학점과 관련 없는 강좌, 프로그램 및 상담 등)에 대한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 8개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활동과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표 1> 대학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 하위 영역별 문항 내용**

지표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문항내용	
대학 취업지원 활동참여(경험) 여부	문1. 학과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문5. 기업/채용정보제공
	문2. 경력개발센터 진로/취업상담	문6. 취업준비 프로그램
	문3. 진로/직업 멘토링	문7. 현장실습/인턴프로그램
	문4. 진로개발 웹사이트 활용	문8. 잡페스티벌/박람회

## 2) 예측변인

예측변수로 개인특성과 학과/전공계열 배경 변수를 활용하였다. 개인특성으로 성별, 학점, 자아개념, 전공공부 시간을 선정하였고, 학과/전공계열 관련 변수로 전공계열/학부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직업과목 수강 여부를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특히, 자아개념의 6개 하위 지표 변수 “1.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2.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3.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4.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5. 내가 계획한 것을 잘할 수 있다, 6.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의 5점 리커트 척도 값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표 2〉 대학 취업지원 유형분류 예측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설명
개인 특성	성별	남자=0, 여자=1
	학점	전년도(2019년) 1, 2학기 학점(4, 4.3, 4.5)을 백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값
	자아개념	1. 잘하는 일, 2. 좋아하는 일, 3. 삶에서 중요한 것, 4. 결단력, 5. 계획수행력, 6. 자존감 점수의 평균 값
	전공공부 시간	개인 그룹 혼자서 일주일 간 전공 과제수행 및 공부시간(단위: 시간) 친구들과 일주일 간 전공 과제수행 및 공부시간(단위: 시간)
학과/ 전공계열	전공계열/학부 (더미)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계열의 더미변수 (해당 계열=1)
	진로/직업과목 수강 여부(더미)	진로/직업탐색 관련 전공과목(수강=1) 진로/직업탐색 관련 교양과목(수강=1) 이력서, 면접준비 등 취업준비 과목 (수강=1) 창업관련 과목(수강=1)

## 3) 결과변인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에서 집단 간의 효과 크기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 하위 9개 영역에 대한 참여 여부와 학과와 대학 만족도, 그리고 대학생활 전반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표 3>과 <표 4>에서 처럼 학생 개인 차원의 진로준비 행동의 9가지 하위 문항에 대한 참여 여부를 각각 사용하였고, 학과와 대학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 변수(하위 11개 문항 평균 값)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사다리 높이 점수로 자신의 삶의 상태를 표현한 11점 척도(0점인 자신의 삶이 최악의 상태에서 10점은 자신의 삶이 가장 최고의 상태)를 사용하였다.

〈표 3〉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하위 영역별 문항 내용

지표	진로 준비행동 문항내용	
진로준비 행동 참여 여부	문1. 직업훈련(사설학원 포함)	문6. 구직정보인터넷 게시
	문2. 자격증취득	문7. 취업스터디
	문3. 취업부탁	문8. 외모관리
	문4. 방문부탁	문9. 공모전
	문5. 면접훈련	

〈표 4〉 대학생활 만족도 하위 영역별 문항 내용

지표	대학생활 만족도 문항내용	
대학생활 만족도	문1. 학생들간의 관계	문7. 교수의 교과목선택지도
	문2. 학교자부심	문8. 다양한 교육과정
	문3. 학과자부심	문9. 공정한 성적평가
	문4. 학생상담	문10. 기초학습프로그램
	문5. 진로정보/상담	문11. 해외연수 지원
	문6. 학생의견 반영	

### 3. 자료분석

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잠재 계층을 분류하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혼합모형(Mixture Model)의 일종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Mplus 8.4 버전(Muthén & Muthén, 2019)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혼합(Mixture)이란 모집단이 동질적이지 않고 질적으로 몇 개의 서로 다른 개별 집단들로 섞여 있다는 말이다. 이는 관찰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집단 유형들을 찾아내는 ‘숨은 집단 찾기’(오영교, 차성현, 2018) 분석방법이다. 다시 말해,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에는 하나의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유형이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p(X_{vi} = 1) = \sum_{g=1}^G \pi_g \pi_{ig} \quad (1)$$

$p(X_{vi} = 1)$ 은 랜덤으로 선택된 개인  $v$ 가 문항  $i(i= 1, \dots, I)$ 에서  $X=1$  점수를 가질 무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즉, 설문 문항에 예라고 답한 문항을 말한다. 계층 크기 모수인  $\pi_g$ 는 잠재계

층  $g(g=1, \dots, G)$ 에 속할 무조건부 확률을 표시한다. 이 모형은 각 개인들은 하나의 잠재계층에만 속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크기 모수의 합은 1이 된다:

$$\sum_{g=1}^G \pi_g = 1 \quad (2)$$

모수  $\pi_{ig}$ 는 주어진 계층  $g$ 에서 문항  $i$ 의 점수가 1이 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pi_{ig} = p(X_{vi} = 1 | G = g) \quad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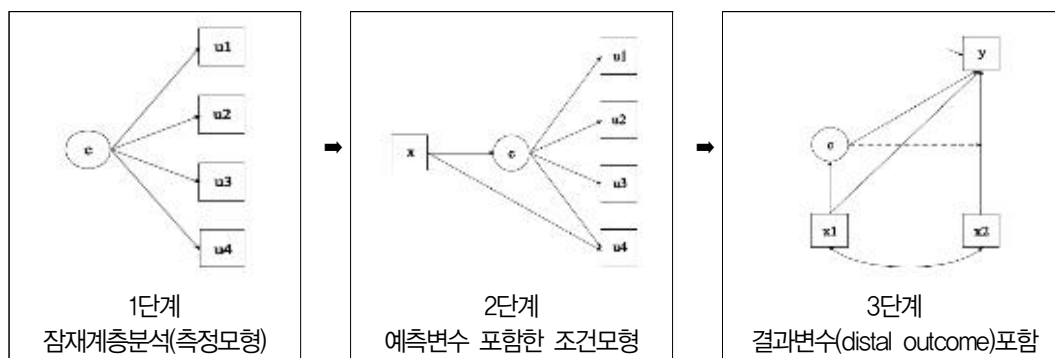
이 확률을 조건부 응답확률이라고 한다. 따라서 LCA모형은 문항  $i$ 에 대한 개인의 응답확률이 잠재계층 선호도와 계층특수(class-specific) 응답확률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응답패턴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계층 수는 적합도 지수와 정보준거 등을 통한 모형비교와 계층의 형태와 해석가능성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분석과정을 요약하면, 1단계로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정보지수(AIC, BIC, SABIC)<sup>2)</sup>,  $\chi^2$ 차이 검증, 분류의 질(Entropy)<sup>3)</sup>, 그리고 계층의 형태 및 해석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다음으로, 잠재계층 사후분포를 활용하여 분류오류확률을 분석에 반영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계층변수( $M$ )를 만들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예측변수들이 계층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분류된 계층별로 결과변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특히, 조건모형 분석의 경우 공변인에 의해 잠재계층 형태와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면서 분석하는 새로운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을 활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Vermunt, 2010). 즉, 분석과정에서 분류오류를 고려하면서 별도로 계층분류에 미치는 예측변수의 영향력은 보조(Auxiliary)변수 R3STEP를 통해 분석하고, 계층 별 결과변수 차이 검증은 Lanza's DCON을 통해 각각 분석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Lanza & Bray, 2013). 연구모형 과정 도식도는 [그림 1]과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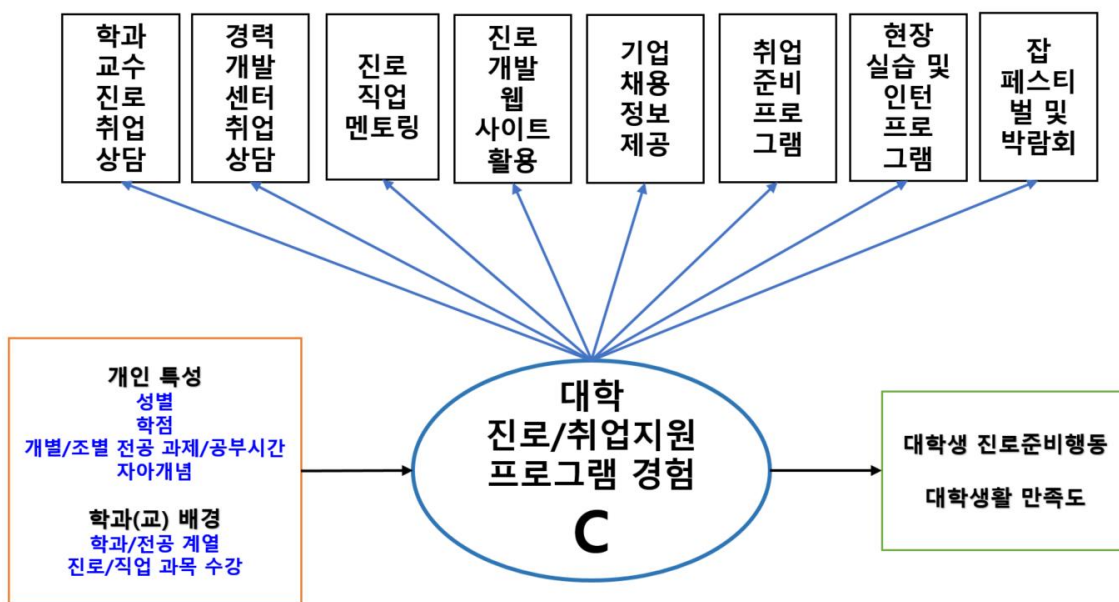
2)  $AIC = 2\ln(L) + 2p$ ,  $BIC = 2\ln(L) + p \ln(N)$ 로 계산되며, 위의 식에서  $\ln(L)$ 는 로그 우도값,  $p$ 는 추정되는 모수의 수,  $N$ 은 표본의 크기를 각각 의미한다. SABIC는 위의 BIC의 식에 대신  $N^* = (N + 2)/24$ 를 대입하여 계산한다.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모두 값이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3) Entropy는 하나의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범위는 0과 1 사이이며, 대략 0.6이면 80%, 0.8 이상이면 90% 이상이 제대로 분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그림 1] 잠재계층 분석과정 도식도(Muth é n2019)



[그림 2]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경험(참여) 다층 잠재프로파일 연구모형

#### IV. 분석 결과 및 해석

##### 1. 변수 기술통계

지표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5>와 같다. 대학의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지표변수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학과교수와와의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 활동 경험율이 49.6%로 가장 높았고 진로/직업 멘토링이 19.6%이고, 기업/채용정보 제공 15.8%이며 나머지는 10% 내외를 나타냈다. 특히, 대학 취업지원 활동 참여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경험자의 만족도를 분석하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하지 않았고 많은 결측치로 인해 집단 내 계층과 집단 간 계층 수들에 따른 모

형 적합도 비교와 수렴에 문제가 많아 다층잠재계층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분석은 비정규성과 결측치에서도 불편추정치를 산출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적용하였다.

〈표 5〉 대학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활동) 지표변수 기술통계

지표변수		사례수	비율(%)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험 유무	1) 학과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4,576	49.6
	2) 경력개발센터 진로/취업상담	4,576	10.9
	3) 진로/직업 멘토링	4,576	19.6
	4) 진로개발 웹사이트 활용	4,575	9.3
	5) 기업/채용정보 제공	4,575	15.8
	6) 취업준비 프로그램	4,576	9.4
	7) 현장실습/인턴프로그램	4,576	10.8
	8) 잡페스티벌/박람회	4,576	8.1

예측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6>과 같다.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여자 대학생이 48%이고, 2019 학년도 1, 2학기 평균학점 백분위 점수 77.34점, 혼자서 전공 공부하는 시간(과제수행시간 포함)은 일주일 평균 최소 0시간에서 최대 65시간이고, 여럿이 모여서(그룹 스터디) 전공 공부하는 시간은 최소 0시간에서 최대 70시간이고, 학생의 자아개념은 하위 6분항의 평균 값은 3.68 점이고 문항내적 신뢰도는 .839으로 나타났다.

학과/전공계열 배경요인으로 대학생 전공이 인문계열은 104명(7.6%), 사회계열 333명(24.4%), 교육계열 67명(4.9%), 공학계열 451명(33.1%), 자연계열 121명(8.9%), 의보건계열 113명((8.3%), 예체능계열이 175명(12.8%)로 나타났다. 진로/직업과목 수강여부에서는 진로/직업탐색 전공과목은 28%, 교양과목은 29% 수강했으며, 취업준비 과목은 11%, 창업과목은 9%가 수강하였다.

〈표 6〉 예측변수 기술통계

요인	변수	사례수	평균(%비율)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개인 특성	성별(더미, 여자=1)	8,516	48%	-	-	-
	1/2학기 평균 성적	4,456	77.34	12.33	-1.07	2.95
	개별 전공과제/공부 시간	4,488	8.45	7.93	2.12	6.22
	조별 전공과제/공부 시간	4,468	2.17	3.76	5.62	57.18
	자아개념	8,515	3.68	0.60	-0.43	0.89

요인	변수	사례수	평균(%비율)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교 및 학과/전공 배경 요인	대학유형	2년 전문대	1,339	19.5%	-	-
		4년제 대학	1,339	68.6%	-	-
	전공 계열 여부 (더미, 해당=1)	인문계열	1,364	7.6%	-	-
		사회계열	1,364	24.4%	-	-
		교육계열	1,364	4.9%	-	-
		공학계열	1,364	33.1%	-	-
		자연계열	1,364	8.9%	-	-
		의보건계열	1,364	8.3%	-	-
		예체능계열	1,364	12.8%	-	-
	진로/직업 과목 수강 여부 (더미, 수강=1)	진로/직업탐색 전공과목	4,574	28%	-	-
		진로/직업탐색 교양과목	4,574	29%	-	-
		취업준비 과목	4,575	11%	-	-
		창업과목	4,573	9%	-	-

<표 7>의 결과변수로 사용된 개인차원의 진로준비행동 하위문항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 중 면접훈련이 448명(34.1%), 취업부탁 326명(24.8%), 방문부탁 256명(19.5%), 구직정보 인터넷 게시 254명(19.3%), 자격증 취득 192명(14.6%), 외모관리 188명(14.3%), 직업훈련 81명(6.2%), 공모전 참여 61명(4.6%) 마지막으로 취업스터디가 28명(2.1%)로 나타났다. <표 8>의 학교 만족도 문항은 학과 만족도가 3.6점이고 대학 만족도 3.72이며, 대학생활 전반 만족도에 관한 하위 11문항 평균이 3.57점이고 문항내적 신뢰도는 .897로 나타났다.

**<표 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하위 영역별 문항 내용**

지표	하위 영역	사례수	비율(%)
진로준비 행동 참여 여부	문1. 직업훈련(사설학원 포함)	1,315	6.2
	문2. 자격증취득	1,315	14.6
	문3. 취업부탁	1,315	24.8
	문4. 방문부탁	1,315	19.5
	문5. 면접훈련	1,315	34.1
	문6. 구직정보 인터넷 게시	1,315	19.3
	문7. 취업스터디	1,315	2.1
	문8. 외모관리	1,315	14.3
	문9. 공모전	1,315	4.6

〈표 8〉 결과변수 기술통계

변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i>a</i>
대학생 학교 만족도	학과 만족도	4,572	3.60	0.84	-0.66	0.70	-
	대학 만족도	4,575	3.72	0.80	-0.74	1.09	-
	대학생활 만족도(11문항 평균)	4,577	3.57	0.58	-0.22	0.81	.897
	삶의 만족도	8,508	7.02	1.95	-0.37	-0.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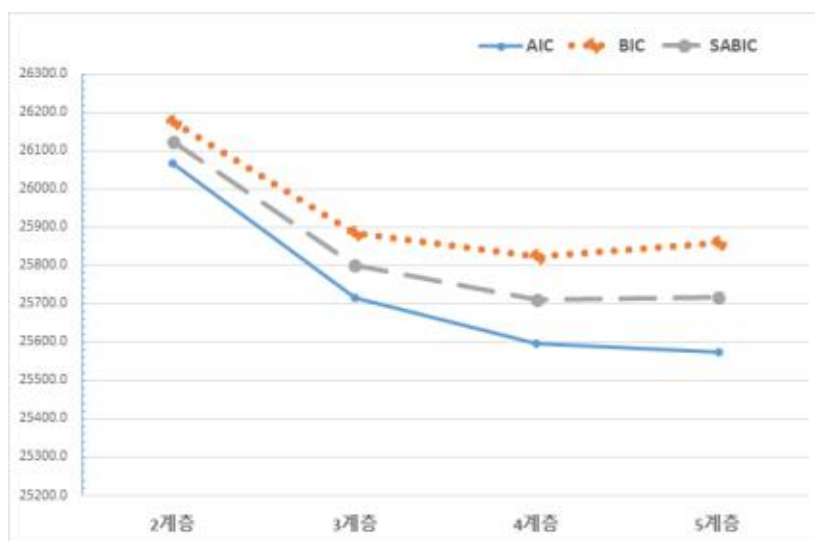
## 2.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활동) 잠재계층의 수 결정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활동) 경험여부에 따른 최적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아무런 예측(외생)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분석한 후,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공변인으로 포함시킨 조건모형을 분석하는 3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Asparouhov & Muthen, 2014; Vermunt, 2010).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층 수를 1개씩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  $\Delta\chi^2$  검증, 분류의 질, 그리고 형태와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 계층분류 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잠재계층 분류 기준(대학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분류기준		잠재계층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 지수	Loglikelihood(#)	-13016.612(17)	<b>-12832.546(26)</b>	-12763.724(35)	-12743.546(44)
	AIC	26067.224	<b>25717.093</b>	25597.448	25575.091
	BIC	26176.402	<b>25884.070</b>	25822.226	25857.669
	SABIC	26122.382	<b>25801.452</b>	25711.010	25717.854
$\chi^2$ 차이 검증	VLMRT	3233.900***	<b>368.131***</b>	137.644*	40.357**
	LMR LRT	3191.792***	<b>363.338***</b>	135.852*	39.832**
	BLRT	3642.978***	<b>506.746***</b>	161.654***	107.152***
분류의질	Entropy	0.809	<b>0.683</b>	0.660	0.663
분류율 (%)	계층 1	19.3	<b>5.9</b>	3.4	1.4
	계층 2	80.7	<b>33.3</b>	59.5	6.9
	계층 3		<b>60.8</b>	21.3	22
	계층 4			15.8	57.7
	계층 5				12.1

\*  $\chi^2$  차이검증은 G개와 G-1개 모형을 비교한 검증임. 굵은 글씨가 최적 계층수임. a = no repeated log-likelihood (i.e., local maxima). b = inadmissible solution in classes. c = no replicated log-likelihood values (H0 log-likelihood value) for the G-1 class model.



[그림 3] 대학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SABIC 변화

[그림 3]을 보면, 첫 번째 기준인 정보지수 AIC, BIC, SABIC가 잠재계층의 수를 3개로 증가 할 때까지는 감소하지만 이후 감소율이 둔화되고, BIC의 경우 4계층이후 오히려 증가한다. 표본 크기가 클 경우, 복잡한 모형일수록 AIC와 BIC가 더 감소하기 때문에(Jedidi, Jagpal & DeSarbo, 1997), 요인분석처럼 스크리도표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최적모형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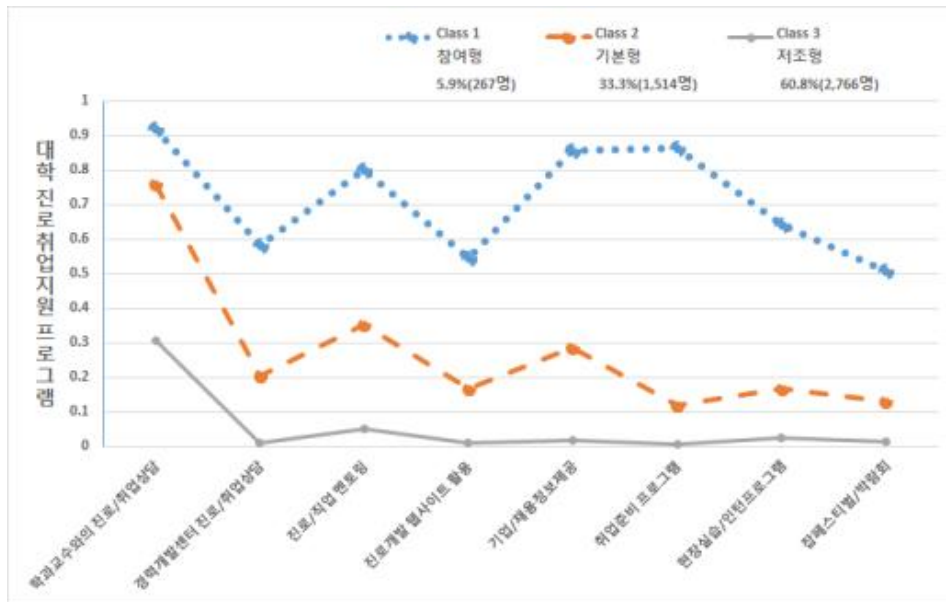
다음으로, 분류확률인 엔트로피의 경우 비록 2계층이 가장 높았지만 3계층에서도 0.683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VLMRT, LMR LRT와 BLRT 값의 경우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켰을 때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계층 수가 더 큰 모형이 적합하다고 나타났으나, 5% 미만의 계층 제거와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계층의 형태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3계층을 최적모형으로 결정하였다.

## 2. 대학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 활동 잠재계층의 형태

최적모형이 3계층으로 분류된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 활동 잠재계층의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전반적으로 3계층 모두 형태는 유사하고 수준만 차이가 났다. 모든 계층에서 학과교수와 의 진로/취업상담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직업 멘토링과 기업/채용정보제공,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았으며, 반면 경력개발센터 진로/취업상담, 진로개발 웹사이트 활용, 현장실습/인턴프로그램, 잡페스티벌/박람회 참여도는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번째 잠재집단에는 5.9%(267명)의 대학생이 속하며 학과교수와 의 진로/취업상담과 진로/직업멘토링, 기업/채용정보제공, 취업준비프로그램에 참여 확률은 80~90%에 속하고 나머지도 50%를 넘는 계층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형(Engaged type)'이라고 명명하였다. 두번째

잠재집단은 약 33.3%(1,514명)의 학생이 속하며, 학생들이 학과 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만 70% 중반의 참여도를 보이고 나머지는 20~30%의 참여율을 보이기 때문에 ‘기본형(basic-participation type)’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 세번째 잠재집단은 약 60.8%(2,766명)의 학생들이 속하며, 다른 집단들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5% 미만의 낮은 수준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학과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만 유일하게 30% 정도 참여하였다. 앞으로 학교나 정부의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의 주된 관심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 집단을 ‘저조형(Disengaged type)’으로 이름 지었다.



[그림 4] 대학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 참여 잠재계층의 형태

### 3. 대학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잠재계층과 예측변수 간 관계

예측변수들의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에 개인특성 변인과 학과요인 관련 요인을 공변인으로 추가한 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로 다항 로짓계수를 구했다. 이는 한 집단을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놓고 나머지 집단계층에 속할 가능성도 비교를 통해서 검증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조(auxiliary)변수를 사용하여 R3STEP 3단계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계층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엔트로피가 낮을 때 부각되는 문제인 분류 오류확률을 분석과정에 반영하였다(Asparouhov & Muthen, 2014).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계층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특성과 관련해서 성별은 영향이 없었고, 평균 학점이 높을수록 기본형과 저조형 집단보다는 참여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과제 및 공부시간은 혼자서 개별적으로 하는 시간은 분류에 영향이 없었고 친구들과 함께 그룹스터디로 공부한 시간은 참여형 집단과 저조형 집단 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그룹으로 전공과제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저조형 집단에 속하기

보다는 참여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아개념은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교 및 학과/전공계열 관련 변인으로, 먼저 대학유형에서 2년제 전문대 대학생은 참여형 집단보다 저조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참여형과 기본형 집단보다는 저조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계열 별 집단분류 확률을 살펴보면, 사회계열학생들은 기본형 보다 저조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공학계열 학생들은 참여형 보다는 기본형과 저조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의보건계열 학생들은 기본형 보다 참여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학 진로 및 직업 과목 수강과 관련해서는 진로와 직업탐색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거의 모두 저조형 보다 기본형과 참여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전공으로 수강한 학생도 기본형보다 참여형에 속할 가능성도 높았지만, 교양으로 수강한 학생은 유의하지 않았다. 더욱이 취업준비 과목과 창업과목을 수강한 학생도 거의 모두 다 저조형 보다는 참여형과 기본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기본형 보다 참여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창업 과목 수강학생의 경우 기본형과 저조형 집단분류에는 영향이 없다고 나타났다. 참고로 대학 소재(서울권, 지방권)는 사례 수가 너무 작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0〉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잠재계층 분류와 예측변인의 영향

요인	변수	참여형 vs. 저조형		기본형 vs. 저조형		참여형 vs. 기본형		
		$\beta$	SE	$\beta$	SE	$\beta$	SE	
개인 특성	성별	0.039	0.223	0.085	0.12	-0.046	0.214	
	1/2학기 학점(평균성적)	<b>0.025*</b>	0.01	0.006	0.005	<b>0.019*</b>	0.009	
	개별 전공과제/공부시간	0.007	0.016	0.003	0.007	0.004	0.016	
	조별 전공과제/공부시간	<b>0.067**</b>	0.026	0.04	0.022	0.028	0.019	
	자아개념	0.315	0.193	0.118	0.116	0.197	0.177	
학과 (학교) 배경 요인	대학유형	2년 전문대	<b>-0.159*</b>	0.07	-0.049	0.039	-0.11	0.065
		4년제 대학	<b>-0.636**</b>	0.238	<b>-0.515***</b>	0.139	-0.122	0.222
	학과/전공 계열	인문계열	-0.915	0.792	-0.509	0.47	-0.406	0.824
		사회계열	-0.409	0.507	<b>-0.679*</b>	0.291	0.27	0.496
		교육계열	-0.988	1.508	-0.07	0.449	-0.918	1.48
		공학계열	<b>-1.34**</b>	0.516	-0.324	0.226	<b>-1.016*</b>	0.495
		자연계열	-0.655	1.103	0.084	0.396	-0.739	1.08
		의보건계열	0.549	0.527	-0.939	0.572	<b>1.489*</b>	0.642
		예체능계열	-2.311	1.258	<b>-1.464**</b>	0.447	-0.846	1.261
	진로/직업 과목 수강	진로/직업탐색 전공과목	<b>1.444***</b>	0.258	<b>0.919***</b>	0.13	<b>0.525*</b>	0.251
		진로/직업탐색 교양과목	<b>1.225***</b>	0.242	<b>0.919***</b>	0.132	0.306	0.234
		취업준비 과목	<b>4.294***</b>	0.423	<b>2.5***</b>	0.405	<b>1.794***</b>	0.234
		창업과목	<b>1.597***</b>	0.394	0.715	0.378	<b>0.882***</b>	0.224

\* $p < .05$ , \*\*  $p < .01$ , \*\*\*  $p < .001$

주: 변수비교 시 vs. 오른쪽 계층이 기준집단임, 굵은 글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표시

#### 4. 대학 진로/취업지원 활동 참여 계층별 학생 진로준비행동과 만족도 차이

대학 차원의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잠재계층별로 결과변수인 학생 차원의 진로준비 행동 하위 9개 분야와 학생의 학교 만족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보조(auxiliary) 변수 Lanza's DCAT(이분형 진로준비행동)과 DCON(연속형 만족도)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먼저, 진로준비행동 하위 영역 중 직업훈련 경험과 자격증 취득 경험, 방문부탁 경험, 면접훈련 경험, 외모관리 경험에서 잠재계층 간 참여확률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의 경우 참여형 집단에서 16.2%의 학생이 경험을 하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거의 경험을 하지 않아서,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직업훈련을 경험할 확률이 참여형 집단에서 기본형과 저조형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또한 기본형 집단이 저조형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경험과 면접훈련 경험 확률은 참여형 집단과 기본형 집단이 저조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면접훈련 참여 경험은 참여형 집단에서 67.3%로 모든 진로준비행동 하위 영역 중 가장 높았고, 기본형 집단에서도 45.2%로 높게 나타났다. 방문부탁 경험과 외모관리 경험의 확률은 참여형 집단에서 30% 증반을 나타내고, 참여형 집단과 저조형 집단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머지 취업부탁 경험과 구직정보 인터넷 탐색과 취업스터디 경험, 그리고 공모전 경험 확률은 잠재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차이

결과변수	계층별 참여 확률(%)			Overall $\chi^2$ test	
	참여형	기본형	저조형		
개인 차원 진로 준비 행동 참여	직업훈련 경험	16.2	0	2.7	<b>68.136</b> <sup>***</sup> a, b, c
	자격증 취득 경험	33.6	29.2	10.7	<b>20.633</b> <sup>***</sup> b, c
	취업부탁 경험	23.2	22.9	14.5	4.174
	방문부탁 경험	30.8	13.5	14.7	<b>4.291</b> <sup>b</sup>
	면접훈련 경험	67.3	45.2	17.9	<b>50.615</b> <sup>***</sup> b, c
	구직정보 인터넷에 올린 경험	18.4	19.2	10.6	4.623
	취업스터디 경험	6.7	2.3	1.1	2.554
	외모관리 경험	35.9	18.0	11.3	<b>10.583</b> <sup>**</sup> b
	공모전 경험	4.0	8.8	5.5	1.180

Not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are shown. For the binary distal outcomes (0, 1), probabilities for the “1” response (i.e., Category 2 in the Mplus output) are provided. The 3-class LCA was used. The number of missing cases varied depending on the distal outcome of interest.

<sup>a</sup> 참여형 vs. 기본형,  $p < .05$ .

<sup>b</sup> 참여형 vs. 저조형,  $p < .05$ .

<sup>c</sup> 기본형 vs. 저조형,  $p < .05$ .

\* $p < .05$ , \*\* $p < .01$ , \*\*\* $p < .001$ , 굵은 글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표시



<표 12>의 만족도 차이 분석결과,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경험 계층별로 학생의 학과 만족도와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 만족도에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학과 만족도에서 기본형 집단의 평균값이 저조형 집단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학교 생활만족도의 경우, 참여형 집단의 평균값이 기본형 집단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대학생 만족도 차이**

결과변수		잠재계층	평균	표준오차	계층별 평균비교	$\chi^2$	p-값
학생 만족도	학과 만족도	참여형	3.781	0.047	참여형 vs. 저조형	0.240	0.624
		기본형	3.756	0.020	참여형 vs. 기본형	2.908	0.088
		저조형	3.696	0.015	기본형 vs. 저조형	<b>5.568*</b>	0.018
	대학 만족도	참여형	3.561	0.052	참여형 vs. 저조형	1.599	0.206
		기본형	3.632	0.021	참여형 vs. 기본형	0.121	0.728
		저조형	3.580	0.016	기본형 vs. 저조형	3.831	0.050
	학교생활 전반만족도	참여형	3.656	0.036	참여형 vs. 저조형	2.733	0.098
		기본형	3.592	0.015	참여형 vs. 기본형	<b>6.888**</b>	0.009
		저조형	3.557	0.011	기본형 vs. 저조형	3.382	0.066
삶의만족도	참여형	7.015	0.118	참여형 vs. 저조형	0.001	0.971	
	기본형	7.010	0.050	참여형 vs. 기본형	0.674	0.412	
	저조형	7.116	0.036	기본형 vs. 저조형	2.974	0.085	

\* $p < .05$ , \*\*  $p < .01$ , \*\*\*  $p < .001$

주: 변수비교 시 vs. 오른쪽 계층이 기준집단임, 굵은 글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표시

## V. 요약 및 결론

최근 들어, 청년층의 진로와 취업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대학차원의 진로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실제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 및 학과/교 요인들이 이 형태분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 형태별로 개인차원의 취업준비활동과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즉,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개별 진로지원 정책이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로 대학생 개개인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라 어떻게 자신들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지 분석한 후 그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청

년층의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타겟에 꼭 필요한 맞춤형 실질적인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학생의 취업을 돕기위한 대학차원의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학생 개인차원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대학과 대학생들이 진로와 취업을 돕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들의 유형에 대한 탐색적, 진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계층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및 학교/과 배경 변인들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각각의 잠재계층별로 실제 9가지 학생 진로준비활동과 4가지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에 학생이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는 3계층으로 결정되었다.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패턴에 따라 ‘참여형(Engaged type)’, ‘기본형(basic-participation type)’, ‘저조형(Disengaged type)’으로 쉽게 이름지었다. 계층형태에서 주목할 점은 94% 정도의 학생들이 저조형이나 기본형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61% 정도의 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저조형 집단은 진로미결정 척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만성적인 진로 미결정 집단을 나타낸다(Meyer & Winer, 1993). 이 집단은 학교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을 제외하고 대학차원에 실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저조형 집단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이 유형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와 진로개척을 위해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에 대한 잠재집단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학교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Astin, 1993; 김충기, 1993)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직업 멘토링(황미경, 문영주, 2012)과 기업/채용정보제공(김병석, 이종구, 2014; 김창훈, 김낙중, 2011),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았으며, 반면 경력개발센터 진로/취업상담, 진로개발 웹사이트 활용, 현장실습/인턴프로그램, 잡페스티벌/박람회 참여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서비스 프로그램에 60% 대학생 참여율을 보고한 결과(김정희 외, 2016)와 20%대의 낮은 참여율을 보고한 선행연구를 모두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박천수, 2018; 신종각 외, 2017; 이지연, 2001).

구체적으로, 학교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경험은 참여형, 기본형, 저조형 각각 90%, 70% 중반, 30%정도 나타났고, 경력개발센터 진로/취업상담 경험은 60%, 20%, 0% 순이고, 진로/직업 멘토링 경험은 80%, 30% 중반, 5% 순이고, 진로개발 웹사이트 활용 경험은 50% 중반, 10% 후반, 0%, 기업/채용정보제공 경험은 80% 중반, 30%, 0%, 취업준비 프로그램 경험은, 80% 중반, 10%, 0%, 현장실습/인턴프로그램 경험은 60% 중반, 10% 중반, 0%, 잡페스티벌/박람회 경험은 50%, 10%, 0% 순서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 참여 여부를 통한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으로, 학점과 그룹별 전공과제/공부시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점이 높은 학생은 저조형 집단이나 기본형 집단에 속하기 보다는 참여형 집단에 속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전공과제나 그룹스터디를 많이 할수록

저조형 집단보다는 참여형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점의 진로준비와 일자리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이만기, 김호원, 2015; 최일수, 신은중, 2016). 따라서 교과나 학과 및 학교차원에서 다양한 학생 그룹스터디를 공모하여 전공 학습동아리 형태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성별의 영향이 없는 이번 결과는 기존의 대다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박소영, 정영숙, 2011; 장이슬, 송병국, 2015; 허영원, 손은령, 2011).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개별 전공과제 및 공부시간, 그리고 자아개념은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과제나 공부시간도 개별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과제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진로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면서 의사소통능력과 발표력을 기르면서 학교의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일 수 있다. 주로 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Bechtoldt et al., 2010; Choi, 2012; Ya-Ling et al., 2014)와 상반되는 자아개념의 경우 진로와 직접 관련 있는 진로자아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자아개념으로 영역구체성(domain specificity) 일치하지 않아 설명이 낮아진 이유일 수도 있다. 추후 진로정체감 처럼 같은 비슷한 수준의 영역구체성을 지닌 변수를 선정하여 매칭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나 학과 수준의 영향요인으로는, 먼저 대학교 유형에서 집단 분류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2년제 전문대 학생일 경우 참여형 집단보다는 저조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참여형과 기본형 집단보다는 저조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생 모두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4년제 대학생의 경우 더욱 학교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취업이 가장 우선인 전문대의 특성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 전문대는 창업지도 교과 비율(46%)이고 일반대는 취업지도 교과목비율(44.6%)로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4년제 대학이 더 저조한 것일 수도 있다(한상근 외, 2019).

계열 별 집단분류 확률을 살펴보면, 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기본형 보다는 저조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공학계열 학생들은 참여형 보다는 기본형과 저조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의·보건계열 학생들은 기본형 보다 참여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공계 학생의 진로준비도가 낮은 선행연구를 뒷받침 한다(김우영, 2017; 김혜민, 라영안, 2020). 반면, 의·보건계열 학생이 참여형에 더 많이 속하는 결과는 진로가 고정된 의·보건계열 학생의 진로준비도가 낮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배성숙, 노희진, 문소정, 2014). 이는 의·보건계열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관련 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공계와 사회계열, 예체능 계열 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활동 참여도 제고를 위한 계열별 맞춤형 진로지원 정책도 고려할 만하다.

대학 진로 및 직업과목 수강과 관련해서는 진로/직업탐색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거의 모두 저조형 보다는 기본형과 참여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전공으로 수강한 학생은 기본형보다 참여형에 속할 가능성도 높았지만, 교양으로 수강한 학생만 유의하지 않았다. 더욱이 취업준비 과목과 창업과목을 수강한 학생도 대부분 저조형 보다는 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기본형 보다 참여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 및 직업과목 수강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김수란, 정미경, 2014; 김종운, 김현희, 2016; 박천수, 2018; 박화춘, 박천수, 2019). 다만, 창업과목 수강 학생의 경우 기본형과 저조형 집단분류에는 영향이 없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분류된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잠재계층 별로 결과변수인 학생 차원의 진로준비행동 하위 9개 분야와 학생의 학교 만족도 간에 차이가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진로준비행동 하위 영역 중 직업훈련 경험(이종찬, 2019; 조성인, 김은애, 2014)의 경우 참여형 집단, 기본형 집단, 저조형 집단 순서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김안국, 2003; 윤지영, 임정연, 2020; 이만기, 김호원, 2015; 이영민 등, 2014)과 면접훈련 경험(안소연 외, 2017)의 경우는 참여형 집단과 기본형 집단이 저조형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문부탁과 외모관리 경험(장태정, 문미경, 2016; 한주원, 2015; Watkins & Johnston, 2000)은 참여형 집단이 저조형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진로 및 취업지원 활동 경험 계층별로 학생의 학과 만족도와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 만족도와 삶의 행복도에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학과 만족도에서 기본형 집단의 평균값이 저조형 집단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민소라 외, 2019; 어윤경, 2011).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의 경우, 참여형 집단의 평균값이 기본형 집단의 평균값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오윤자, 이흥연, 안성식, 2018). 그러나 삶의 만족도에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집단별로 학생 자신의 생활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과와 학교 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것이 학교와 삶의 만족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의·보건계열 학생이면서, 학점이 높고, 진로/직업과목을 수강하고, 그룹 전공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주로 속하는 참여형 집단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으로 이 집단의 학생들은 개인차원에서도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방문부탁, 면접훈련, 취업스터디 같은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결국, 학생의 학과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로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대학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은 학생의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취업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회성, 전시성 성격이 강한 취업박람회, 기업의 채용설명회 보다는(최일수, 신은중, 2016; 천영민, 정승철, 남기성, 2019) 진로와 취업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고, 인턴십, 현장실습, 취업알선 등을 통한 실제 직업세계와 밀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성희진, 나승일, 2012). 따라서, 개별 대학차원 뿐만 아니라 K-MOOC나 학점은행제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해서 최신 현장 실무를 반영한 양질의 진로/직업 관련 전공 및 교양과목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 방향은 저학년은 진로설계와 관련된 교양교과 위주로 개설하고, 고학년은 현장능력 강화와

관련된 전공교과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비록 KEEP II 데이터가 대규모 패널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변수 선정에 있어 이차데이터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모형설정에서 진로/직업 과목수강이 진로 및 취업서비스 참여 계층분류에 영향요인으로 설정되었으나 반대방향으로 진로 및 취업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계층에 따라 진로/직업 과목 수강여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단연구를 통한 인과관계 방향성 검증과 관련 이론적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 측면에서, 조건모형에서 보조변수(Auxiliary)를 공변으로 투입 시 프로그램에서 보조변수의 결측값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listwise deletion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모형 수렴문제와 추정치의 편이가 발생하여 대학 소재, 외국인 변인들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특히, 원래 개인 특성과 학교특성의 다층구조를 반영한 다층잠재계층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다양한 수렴문제와 집단 내 계층수와 집단 간 계층 수를 조합한 많은 모형비교를 위한 엄청난 분석 소요시간과 모형의 복잡성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과 이론적 근거 빈약, 공변인의 평균중심화와 집단 내외 수준 간 상호작용 문제(grand mean/group mean) 등으로 인해 다층잠재계층분석은 성공하지 못했다. 잠재전이나 다층분석을 적용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 ❖ 참고문헌 ❖

- 가영희(2006). 성인의 직장-가정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163-186.
-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17-36.
- 강희순(2010).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스트레스 대처전략,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3), 141-155.
- 경기일보(2021.8.29.). 코로나에 꼭 막힌 취업, 절규하는 2030 대학생. Retrieved September 9, 2021, from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8530>
- 교육부(2020).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분석 자료.
- 김건(2019). 호텔관광전공학생들의 취업준비 행동이 취업결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 Tourism Research, 44(4), 25-41.
- 김난영(2020).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관광교육의 수업 질, 수업만족, 학습성과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19(5), 207-226.
- 김병석, 이종구(2014). 직업정보 탐색과정에서 취업준비생과 취업사이트간의 사회네트워크 구조당위성 탐색연구. 한국경영공학회지, 19(4), 41-58.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상식(2019). 농업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진로정체감 및 취업준비 행동의 구조적 관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서리(2018). 취업준비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진로장벽 및 취업준비 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덕, 이용국(2014). 체육계열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구성원 상호작용이 전공만족 및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2(4), 341-352.
- 김수란, 정미경(2014).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이 진로장벽, 진로결정, 진로준비 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3), 409-433.
- 김숙자(2018).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논문지, 11(3), 221-228.
- 김승보, 박태준, 신선미, 임건주(2012). 고등교육의 진로지도 체계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우영(2017). 대학전공별 첫 직장의 입직 및 직무만족도: 공학계열 정원확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연구, 35(2), 113-142.
- 김윤중(2015). 4년제 대학생의 취업목표설정이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1), 7293-7299.
- 김은애, 진성미(2015). 대학생들이 진로탐색 과정에 겪는 경험: 근거 이론적 접근. 직업교육연구, 34(3), 67-90.
- 김익형, 김창현(2019). 학교 교육행정서비스와 대학생의 인성 및 학교생활만족 간의 영향관계. 중등교육 연구, 67(3), 377-410.

- 김정희, 정일환, 정진철, 주동범, 이현민(2016). 4년제 대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전담기구 현황 분석. *진로교육연구*, 29(4), 1-28.
- 김중운, 김현희(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 409-433.
- 김주섭(2013).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의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dragogy Today*, 16(4), 31-59.
- 김지영(2014). 대학생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의 학습적 의미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7(4), 41-90.
- 김창훈, 강낙중(2011).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실적과 일자리 공급의 연계 방안 연구. *한국경영공학회지*, 16(3), 329-339.
- 김충기(1993). 진로상담 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논집*.
- 김혜민, 라영안(2020).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수준의 매개효과: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173-193.
- 김호원, 이종구, 김홍유(2011). 국내 대학 취업진로기구 운영실태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25(1), 317-345.
- 김효정(2012). 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1), 62-70.
-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 대학 재학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1), 63-92.
- 문승태, 박미하(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낙관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85-204.
- 민소라, 김영택, & 이슬기(2019).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HRD 연구*, 15(3), 1-23.
- 박가열(2009).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181-198.
- 박민지, 김계현(2015).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 *상담학연구*, 16(4), 193-208.
- 박소영, 정영숙(2011).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17(1), 18-39.
- 박정희, 김홍석(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 박천수(2018). 대학생 진로교육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18(4), 51-75.
- 박현선, 이현주, 정익중(2011).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의 종단적 상호관계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183-206.
- 박화춘, 박천수(2019). 진로교과목과 직장체험 참여 경험이 일자리 만족, 직업과 적성 및 전공 일치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2(2), 109-137.
- 배성숙, 노희진, 문소정(2014).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25(1), 45-59.
- 백원영, 김민경(2019). 대학의 진로 및 취업 준비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 서화정, 김병주(2016). 취업준비프로그램과 대학교육만족도가 직무일치를 매개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4(3), 51-75.
- 서희정, 윤명희(2014).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표준화 연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연구*, 33(3), 105-125.
- 석민경(2020). 대학졸업예정자의 취업불안, 구직효능감,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 졸업 후 취업상태, 성별, 대학소재지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희진, 나승일(2012). 대학졸업예정자의 경력개발역량과 경력탐색행동 및 대학 경력개발지원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1), 83-108.
- 손경애, 이덕로(2015). 한국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재)미래한국재단.
- 손영민(2016). Meaning-Making 기반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9(2), 191-212.
- 송윤정, 조규판(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355-374.
- 송호준(2016). 대학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556-567.
- 신소영, 권성연(2013). 대학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과학연구*, 44(3), 107-132.
- 신종각, 이주현, 오세미, 김주희(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신혜숙, 남수경, 민병철 (2013).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취업성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211-235.
- 안기돈, 황명구(2018). 대학생의 취업준비 동기유발을 위한 학과단위 전공 취업교과목 효과분석. *취업진로연구*, 8(2), 139-157.
- 안소연, 오영주, 임은순(2017). 관광학과 대학졸업자의 전공만족, 진로탐색행동, 취업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3(3), 203-219.
- 안영식, 정주영, 김영석(2013). 대졸자의 자격증취득과 취업연계성에 관한 질적 연구: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역량개발학습연구*, 8(1), 54-73.
- 어윤경(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대학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분석: 대학전공 선택요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 염동기, 문상규, 박성수(2017).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취업진로연구*, 7(4), 45-68.
- 오영교, 차성현(2018).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유형 분석 잠재계층분석방법(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통계연구* 23(3), 39-64.
- 오윤자, 이흥연, 안성식(2018). 진로결정요소에 따른 대학생의 만족도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대학생생활에서 개인의 환경특성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8(2), 117-137.
- 윤지영, 임정연(2020). 4년제 대졸자의 진로 및 취업준비행동이 첫 일자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 58(4), 181-212.
- 이강주, 허은정, 이상무, 박승재, 우정원, 인효연(2015). 대학의 진로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이계형, 김경근(2008). 대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형태 결정요인. *교육학연구*, 14(3), 87-111.
- 이기종, 김은주(2006). 취업 및 미취업을 결정하는 요인탐색. *교육논총*, 26(1), 17-37.
- 이만기, 김호원(2015). 대졸자의 괜찮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준비 활동의 영향 분석. *취업*



- 진로연구, 5(4), 115-138.
- 이상호, 장유희, 진대선(2010).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효과성 분석. (주)커리어파트너.
- 이수연, 박은혜(2015). 스마트폰 활용 멘토링 프로그램이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 및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4), 169-193.
- 이억범, 김현희(2004). 대학생의 다중지능, 학교환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 수준간의 인과관계. 진로교육연구, 17(1), 39-53.
- 이영대, 윤형한(2007).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영민, 이수영, 임정연(2013). 4년제 대학 예체능계열 졸업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취업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52(1), 1-28.
- 이영민, 이수영, 임정연(2014). 대학생 선호직장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53(1), 337-374.
- 이예진, 이기학(2010).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29(2), 267-287.
- 이정미, 길혜지(2019). 대졸자의 대학교육 및 취업 준비 경험이 전공일치 취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37(5), 127-148.
- 이정애, 최용용(2010). 대학생의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구조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3(2), 101-121.
- 이종찬(2019). 취업역량에 관한 대학생 교육요구도 분석 - 경력관리활동, 면접전형, 인재상, NCS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17-141.
- 이제경, 선혜연(2011).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연구센터.
- 이지연(2001).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형룡, 박슬기(2010). 호텔, 외식, 관광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13(1), 79-105.
- 임언, 장홍근, 윤형한(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강, 조현철, 이엽삼(2021). 중국 체육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및 진로의사결정이 대학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30(2), 719-731.
- 장승환, 임진혁, 이재춘(2017). 취업프로그램 활용이 대학생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7(3), 129-148.
- 장이슬, 송병국(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학 연구, 22(7), 363-392.
- 장진이, 이지연 (2014). 성인 직장인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소명수행 의식, 삶의 의미, 일의 의미, 직업 만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259-278.
- 장태정, 문미경(2016).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행정학회지, 22(4), 344-352.
- 장한별, 박재현(2018). 인문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도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0(3), 17-46.
- 전도현(2010). 전문대학생 취업진로지도 방안연구 : 오산대학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정순돌, 김정원(2010). 은퇴한 배우자를 둔 중고령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49, 31-50.
-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2011).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53-78.
- 조성인, 김은애(2014). 구직요건(SPEC)에 대한 기업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의 인식 차이. 취업진로연구, 4(1), 41-61.
- 조윤서(2021).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 행동이 취업 및 괜찮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33-161.
- 조원기, 이수정(2016).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생의 대학 생활 및 대학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673-700.
- 진미석, 정혜령, 이수영(2010). 국내 4년제 대학의 진로개발지원 현황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3(1), 135-152.
- 천영민, 정승철(2017). 대학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 학술대회연구보고서.
- 천영민, 정승철, 남기성(2019).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1), 141-151.
- 채창균,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8.
- 최일수, 신은중(2016).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대학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23(1), 23-49.
- 통계청(2020). 고용동향(7월). www.nso.go.kr
- 한국경제(2020. 08. 13). 청년 체감 실업률 사상최고, Retrieved December 30, 2020, from <http://www.hankyung.com>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4년제 대학생의 스펙 쌓기 실태.
- 한상근, 정윤경, 이재열, 정지은, 류지영(2019).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2019).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주원(2015).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외모관리행동이 취업불안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24(2), 163-185.
- 허균(2016). 대학 진로·취업 프로그램이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연구. 직업교육연구, 35(4), 47-61.
- 허형원, 손은령(2011). 재한 중국유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4(1), 51-66.
- 황미경, 문영주 (2012).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직업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인적관리연구, 19(4), 1-25.
- Alves, H., & Raposo, M. (2007). *The influence of university image in students' expectations, satisfaction and loyalty*. Paper presented to 29th annual EAIR forum.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Society, Innsbruck, Austria.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Astin, A. W.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echtoldt, M. N., De Dreu, C. K. W., Nijstad, B. A., & Zapf, D. (2010). Self-Concept Clarity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78*(2), 539-574.
- Choi, B., Park, H., Yang, E., Lee, S., Lee, Y., and Lee, S. (2012). Understandi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 Meta-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9*(5), 443-460.
- Crites, J. O.(1969). *Vocational Psychology, The study of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Jedidi, K., Jagpal, H. S., & DeSarbo, W. S. (1997). STEMM: A general finite mixture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Classification, 14*(1), 23-50.
- Lanza S. T., Tan X., & Bray B. C. (2013). Latent Class Analysis With Distal Outcomes: A Flexible Model-Based Approac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 1-26.
- Lent, R. W., Brown, S. D.(2006).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social cognitive constructs in career assessment: A measurement guid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12-35.
- Mandell, C. et al.(1992),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on college campus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63rd, Boston, MA), ERIC(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ED, 350501).
- Milson, A., & Coughlin, J. (2015).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 A grounded theory study. *NACADA Journal, 35*(2), 5-14.
- Meyer, B. W. & Winer, J. L. (1993). The Career decision scale and neurotic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 171-180.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9). *Mplus user's guide* (8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2nd ed.). San Francisco: Jossey-Boss.
- Sumaedi, S., Bakti, I., & Metasari, N. (2011). The effects of students'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price on student satisfaction. *Management Science and Engineering, 5*(1), 88-97.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Watkins, L. M., & Johnston, L. (2000). Screening job applicants: The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application 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8*(2), 76-84.
- Ya-Ling, W., Yu-Lin, T., & Cheng-Wu, C. (2014). Examining the experiences of career guidance, vocational self-concept, and self-perceived employability among science education majors in Taiwan. *Journal of Baltic Science Education, 13*(2), 152-190.

## ❖ Abstract ❖

###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the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of College Stud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Kim Jeong Eun(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university-level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and examine whether a teacher's demographics, school background, and operational factors predict class membership and their differential effectiveness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atisfaction.

To reach the research goals, latent class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4th(2019)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data. Latent class analysis was conducted by *Mplus* 8.4 using the 4th(2019)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data. The subjects included 8,516 college students (4,465 male students (52.4%), 4,051 female students (47.6%)).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hree types of latent classes: 'Engaged type (n=267, 5.9%)', 'basic-participation type (n=1,514, 33.3%)', 'Disequipped type (n=2,766, 60.8%)' for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activities.

As for the predictors of class classification, a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s, GPA and group study time for major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school level, type of colleges, major, and subjects showed a statistically meaningful effect.

Regarding the actua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atisfaction,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tudents'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activit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preliminary step for guiding career preparation of youth. Given the identified type of college students, customized supporting programs and policies for each type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Activiti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STEP Method, Latent Class Analysis